

<論說>

公·開業獸醫師에 對한 提言

郭 潤 宅

지난 2月號獸醫界誌를 통하여 公開業獸醫立場에서 라는 題目下에 서울의 金孝中先生과 京畿의 鄭益鎔先生이 各各 當局에 對한 要望事項을 記載한 것을 보고 非單 두분만이 아니라 臨床을 擔當한 獸醫師 여러 分의 要望이라고 生覺되므로 本誌를 통하여 몇 가지 點을 點을 적어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問題는 오늘날 새삼스러히 擡頭된 것이 아니고 機會있을 때마다 論議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 獸醫師가 經濟的 基盤이나 社會的 地位가 確立된다며는 論議될 餘地조차 없는 것이나 아직은 그러한 與件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가 자주 提起되는 것이라고 본다.

公開業獸醫師만이 아니라 現在 우리 나라 獸醫師가 當面하고 있는 問題는 참으로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하나하나 列擧할 必要도 없이 其의 主要 原因은 무엇보다도 獸醫師의 就業處가 如意치 않은 탓이고 너무나 獸醫師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한다. 勿論 外國에 比한다면 많다고 할 수 없지마는 現在 우리나라 畜產業 規模로 보거나 社會制度上으로 보아 아직은 數 많은 獸醫師가 要請되지 않을 것임에도 不拘하고 每年 200名 程度의 새로운 獸醫師가 增加되고 있는 것이다.

畜産이 發展된다고 하더라도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一定한 期間이 必要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으며 따라서 훌륭한 施策과 行政力이 加味된다고 하더라도 一時에 發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獸醫師輩出도 畜産이 發展되는 成長度와 併行해야만 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獸醫師는 過剩狀態인데다가 經濟的 基盤이 弱하기 때문에 些少한 問題까지도 掛念치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獸醫師가 開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開設된 家畜病院이 많을뿐 아니라 養畜家의 經濟力이 零細하기 때문에 業務量도 적고 따라서 充分한 收入을 期待할 수 없음으로 開業獸醫는 多같이 經濟的인 自立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實情이기 때문에 生存競爭의 手段에서인지는 모르되 理解할 수 없는 同志間의 中傷과 非難을 受 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相互間의 信義를 忘却하는 事例이 있는 것을 볼때에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國民이 다잘살고 누구나 安定된 生業을 이루고 있는 中에 唯獨이 獸醫師만이 當面하고 있는 處地라면 좀 問題가 다르겠지만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形便으로 보아서는 各階各層이 다같은 處地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듣는바에 依하면 美國같은 데서는 人力의 雇傭보다 는 機械의 힘을 빌리는 것이 生産原價가 싸게 먹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反對로 機械를 使用하느니보다도 人力으로 하는 것이 有利하다고 하는 程度로 人口가 過剩狀態이며 失業자가 많아서 사람이 賤할 地境이니 그 가운데에서의 生存競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社會的 現實속에서 우리들 獸醫師는 서로가 激勵하고 親睦을 圖謀하여 漸進의이나마 斯界의 健全한 發展을 이룩하도록 多같이 努力해야할 것이다.

誌面을 通하거나 面談할機會가 있으면 恒常公開業 獸醫師의 苦衷을 듣고 또는 實情을 보게 되며 政府에 對한 要請事項을 듣게되는데 언제나 시원한 對答을 못할 뿐 아니라 뚜렷한 解決도 짓지 못하는 것을 안타가이 生覺하는 바이다. 다만 焦燥한 情속에서 무엇인가 解決方案을 模索해 보려고 애태우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여기도 許多한 隘路와 難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 公獸醫制度에 對하여

우리 나라 畜産은 原來其規模가 零細性을 免치 못하고 있어서 거의 農家副業의인 養畜이며 專業이라 하더라도 企業性을 띠지 못하고 다만 生計維持를 爲한 程度의 것이다. 其 例로서는 家畜數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 昨年度 即 1962年未 現在狀況을 보래도 韓牛에 있어서 總 1,252,550頭中 1戶當 1頭만을 飼育하는 戶數가 1,092,501戶이며 돼지에 있어서는 總 1,671,935頭中 1戶當 1頭式 飼育하는 것이 1,054,843頭이고 2頭 以上 飼育하는 것은 189,984戶로서 每戶當 平均 3.3頭에 不過하며 닭에 있어서도 總 13,046,867首中 約 8割이 副業養鷄이고 다만 2割該當數만 專業養鷄라고 할 程度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畜産은 거의 農家副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家畜이 主로 農村에 分布되고 있어서 傳染病이나 一般疾病으로 因한 被害를 豫防하거나 或은 診療하는데 있어서는 都市周邊에 偏하고있는 開業獸醫만으로서는 到底히 勘當하기가 困難한 것이다.

그러므로 政府에서는 公獸醫制度를 採擇하여 山間 奧地까지 끌고루 獸醫가 드러가서 傳染病을 豫防하고 疾病을 診療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獸醫師의 求職處를 마련한 것도 아니고 다만 防疫과 診療를 擔當해야 하는 한 便 獸醫師法 第21條에 規定된 바와같이 防疫과 診療以外로 家畜疾病에 對한 調査研究과 家畜의 保健向上을 爲한 環境衛生의 改善 또는 行政官署에서 指示하는 이에 隨伴되는 業務를 遂行해야 하는 것이다.

近者 一部獸醫師中에서는 開業獸醫의 向上發展과 處遇의 均等을 爲하여 公獸醫制度를 廢止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實情으로 보아서는 아직 그러한 問題를 論議할 段階가 아니라고 본다.

萬若 公獸醫制度를 없앤다고 하면 山間僻地나 農村에 配置되어있는 公獸醫들이 生計維持가 困難하므로 거의 其 地方에서 물러나가야 하기 때문에 農村地帶의 家畜診療와 防疫에 우선 癱痺가 生할 것이며 一時에 獸醫師의 失職者가 많이 나와서 큰 社會的 問題가 될뿐 아니라 一部獸醫師는 都市에 集中하여 家畜病院을 開設할 것이므로 都市開業獸醫들은 只今보다도 더욱 甚한 生存競爭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들과리 獸醫나 쇠침쟁이들이 오늘 날에 있어서는 公獸醫가 곳곳에 配置되어 있기 때문에 漸次로 그의 蹤跡을 감추고 있는데 公獸醫를 없애게 되면 다시 跋扈하게 되어서 우리나라 家畜診療의 秩序는 極度로 紊亂하게 되어 養畜家들은 큰 被害를 입게 될 것이다.

한편 一部開業獸醫中에서는 公獸醫만을 優待한다거나 公獸醫와 開業獸醫를 別個視한다는 말이 있는데 勿論 同一地域內에서 이웃 家畜病院은 公獸醫이고 自

己는 開業獸醫의 立場이라면, 或 그러한 느낌이 드는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行政을 擔當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差別 感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가져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政府에서 家畜病院을 育成하거나 臨床技術을 向上시키는 諸般施策에 있어서는 絶對 公獸醫와 開業獸醫를 區分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同一한 處地에서 取扱하고 있다.

또한 公獸醫가 手當을 받으면서도 診療費는 開業獸醫와 똑같이 받는다 고도 하는데 公獸醫手當은 獸醫師法 第21條에 規定된 業務를 義務적으로 遂行해야 하는 것과 行政官署의 指示가 있으면 이를 充實히 履行해야 하는 말하자면 其身分이 公務的인 性格을 띤 것으로서 服務上의 責任을 지는 外에 僻地補償을 爲하여 支給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公獸醫手當은 診療費를 廉價로 하거나 無料로 하기 爲한 報酬가 아니라는 것을 明白히 하여 둔다.

그리고 現職公獸醫라고 해서 永久히 其職에 있는 것이 아니고 本人意思에 따라 辭退하거나 平常時의 職務에 誠實치 못하며 主務官署指示에 不服從할 境遇 또는 業務上에 不正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解免하고 다른 獸醫師와 交替하는 것이기 때문에 開業獸醫도 언제든지 公獸醫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獸醫師會의 育成에 對하여

獸醫師相互間의 親睦과 福利를 增進하며 會員間의 技術交流과 向上發展을 圖謀하기 爲하여 結合된 獸醫師會의 育成은 他에 못지 않게 重要한 問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서울의 金孝中先生의 말과같이 其 育成方法은 獸醫師個個人의 自治力을 培養해야 하는 것과 行政的인 뒤바침이 있어야 하는 것은 事實이다.

“自助者는 天助”라는 옛말이 있다. 獸醫師會는 他人을 爲하는 것이 아니라 獸醫師 各自의 利益을 爲하여 이루어진 團體이니 만치 이는 어디까지나 會員 스스로가 도와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行政的인 育成도 會員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自立 하겠다는 態勢가 없는 限 到底히 實效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한 組織體의 힘은 몇 사람의 努力만으로서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會員들이 團結하여 協力해야만이 成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獸醫師會의 動態를 살펴본다면 理想的인 定款과 任員을 選出해 놓고는 經濟的으로나 精神的

으로 아무런 協助도 없을뿐 아니라 個中에는 전혀 無觀心한 會員도 許多하다는 것이다.

모임體가 構成되면 무엇보다도 運營에 必要한 事務室과 備品이 있어야 할 것이며, 最少限度의 維持費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常職의인 問題라고 본다.

그러나 一部地方獸醫師會中에는 아직까지 事務室도 없고 備品도 없을 뿐아니라 豫算조차 策定치 않은 곳 이 있는가하면 大部分의 會員은 會費를 잘 내지 않고 甚至於는 이제까지 會費를 내본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우수한 일은 이제까지 總會에도 參席한 일이 없고 會費조차 한번도 내본적이 없는 獸醫師가 會員된 權利만은 몹시 主張하는 사람이 있다.

다음으로 行政의 育成問題인데 이것은 財政의인 補助와 運營上의 指導監督의 두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첫째 財政의인 補助에 對하여서는 財産助成을 爲한 補助 事業費補助 또는 運營費補助로 나누게 된다.

財産助成을 爲한 補助라 하면 事務室 또는 會館等 造成費補助인데 再昨年부터 大韓獸醫師會의 會館建立 補助財源을 捻出하기 爲하여 努力하였으나 限定된 政府財政形便에서 그보다도 急한 獸醫務事業關係로 아직까지 宿題로만 남은채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다.

繼續努力할 것이고 事業費補助에 對하여서는 獸師會가 發足한 以來 獸醫界誌와 外國圖書 翻譯發刊費等을 大韓獸醫師會에 補助하고 있으며, 各種講習會費도 中央과 地方獸醫師會에 補助하여 充分치는 못할망정 獸

醫師會로서의 幾個事業은 持續시키도록 하고있는 中이며 앞으로는 獸醫物資斡旋을 爲한 基金融資問題까지도 生覺하는 中이다.

특히 獸醫師會로서 가장 重要한 機關誌이며 技術普及誌라고도 할수 있는 獸醫界誌로 말하면 過去 每年2 回밖에는 發刊치 못하던 것을 昨年에는 年4回 發刊하였고 今年에는 6回 即 2個月에 1回式 發刊하도록 補助하고 있는 것이며 運營費補助 即 事務費補助에 對하여서는 政府의 財政難도 있지만 이러한 것은 可能한 限 自力으로 解決하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人件費에 限하여서는 自體財力만으로서의 勘當하기가 困難하겠기에 中央과 地方獸醫師會에 1人式 採用할수 있도록 補助方案을 講究中에 있다.

둘째로 獸醫師會의 運營上의 指導인데 이 問題에 있어서도 行政力이 充分히 反映될 수 있는 態勢가 自力으로 造成돼 있어야한다.

大韓獸醫師會와 一部地方獸醫師會는 關係機關과의 連絡提携도 緊密히 하고 自體活動도 漸次軌道에 오르 고 있으나 餘他地方獸醫師會는 名目上의 獸醫師會일 뿐 전혀 技能을 發揮치 못하고 있어서 政府로서는 如斯한 獸醫師會의 組織을 強化하며 任員을 補強하기爲 하여 計劃中이며 앞으로는 形式的인 總會나 任員의 業務怠慢 또는 獨善行爲를 團束하여 其의 運營에 合理化를 圖謀하며 漸次的으로 向上發展되도록 指導育成 해야 하겠다. <다음 號에 繼續>

(筆者=農林部家畜衛生課長)

(抄 錄)

Distemper 症候群의 鑑別 診斷

Small Animal Clinic [1962. 6月號 <最近의 犬 Distemper에 대하여> P183 大石 勇. 및 岸上 正義는 옛날부터 Distemper 症候群이라는 이름 밑에 여러 가지의 病에 遭遇한바 있으나 現在는 이것이 系統的으로 分類되어 狹義의 Distemper 症候群이 되었고 이것을 確實히 Catch하는데 따라 Distemper와 비슷한 몇가지 病에대한 病性鑑別을 하게된 關係로 幅이 좁아지고 確率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結局 現在 Distemper와 비스 한病으로서 Hardped는 뒤에 미루어 놓고, (同一하다고 보고) Distemper 症候群, 傳染性肝炎, Leptosiera 以外에도 Toxoplasma도 있겠으나 現在로는 Distemper 肝炎 Lept, 의 세가지가 있다고 본다. 이 세가지를 徵候上으로 몇가지 重點을 들어 鑑別

해보면 첫째 發熱에 대하여서는 Distemper는 殆半 必要하다. (肝炎은 必發 Lept, 는 上期는 上昇하나 後에는 下降한다. (熱型은 Distemper는 그 峰相이고 肝炎은 最初부터 上昇하고 鞍型 카-브이다)

凍結精液融解後의 受精能力

凍結精液의 融解後에 있어서, 어느 時間까지 受精能力을 保有할수 있는가에 對한 實地問題를 究明하기위 하여 野外試驗을 하였든바, 凍結精液을 풀을 40~49°C 의 溫湯에 70秒間 當근 融解精液을 即時 人工受精에 使用한 경우와, 融解後 4°C의 氷水中에 4時間과 6時間保存後 人工受精한것을 比較한 즉, 4時間에서는 融解後直時使用한것과 差異가 없었으나, 6時間保存에서는 그 受胎率이 低下되었다. 이試驗에서 施行한 人工受精回數는 1.342回에 達하였다.

(J. W. Kelly, J. Amer. Vet. Med. Ass. 141, 1962)